

# 함글함글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신 6:5~7, 엡 6:4, 삿 2:10  
2021년 주님의교회 표어



438  
2021.6.27  
창립기념호

##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_ 마태복음 5:14

## 오늘의 주요기사

3 당회소식  
4-7 창립기념특집

8-9 뷰티풀페어링센터 소식  
10-13 사역 소개(영어예배)

14 유유청청 여름프로그램 소식  
15 목회칼럼

## 서른 세 살

주님의교회가 33주년을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창이라고 할 나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서른 살 때였습니다. 이후 유대 땅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다가, 서른 세 살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3년 전 우리가 세운 이 소박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신 모범을 따라 왔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는 날이기를 기대합니다.

함글함글

## 교회 안에서 닮아가는 가족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빠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즐함울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이번 호는 창립기념호로 교회에 대한 책 속의 명문장을 소개합니다.

함즐함울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 닮아가는 가족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 아빠랑 엄마는 원래 남남이었다가 만나서 결혼으로 가족이 된 거잖아?” “그렇지~ 아빠랑 엄마는 결혼해서 가족이 된거지” “근데~~ 왜 아빠랑 엄마는 서로 닮았어?”

언제는 아빠랑 엄마랑 결혼할 때 이야기해주니 “아빠랑 엄마랑 결혼했었어?”라며 놀라던 8살 둘째가 이제는 아빠와 엄마가 결혼한 사이라는 것은 인정할 모양이다.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인정해줘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서로 남남이었다가 결혼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아이가 보기에 엄마 아빠가 원래 가족이 아니었는데도 닮은 게 이상했나보다. 아이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며 한참 웃었다. 그 모습을 보고 10살 첫째가 “가족은 닮는 게 좋아”라고 말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한다. 함께 하는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가 비슷하고,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동일한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며 사용하는 얼굴근육이 같아지기 때문에 서로 닮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때문이다. 타고난 기질이야 변하기 어렵겠지만 서로 맞춰가는 가운데 습관이나 성격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듯하다.

아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고, 신랑되신 예수님이라고도 한다(에베소서 5장 22절~25절).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는 서로 부부라 할 수 있지 않나?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장 25절)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 역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웃으실 때 함께 웃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때 함께 눈물 흘린다면, 분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모인 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죠?”

아이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욱 사랑하고, 교회와 더불어 함께 웃고 울며 교회를 세워가는 집사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아이가 나의 신앙교사가 되었다.

책 속의 명문장

###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안시, 김동완, 윤겸, 윤단, 2010

- 기독교란 철학이나 내향성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전적으로 공동체라는 기반 위에 서는 것이 기독교다. 내가 교회를 끝내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교회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점을 인정한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다.

- 나는 교회에 가면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았다. 이 새로운 전망의 방식을 도입하고 보니 어느덧 나는,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을 그저 참고 봐

준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하며 교회 문을 나서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 몇천만 원씩 버는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일자무식의 노숙자들에게든 복음은 동일했다.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장소로 회귀하게 되었다. 외형으로야 우리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다.

-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 토대, 곧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민족, 인종, 계급, 나이, 성을 초월한다. 공동체가 먼저다. 우리를 갈라놓는 갈등과 문제는 나중이다.

- 교회란 거름과 같다.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에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밖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손 내미는 행동이 교회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나는 믿는다.

- 교회를 이와 같은 응급실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밤늦도록 열려 있고, 찾아가기도 쉬우며,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으로 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돌봐주는 곳.

- 실로 교회란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들고 오는 곳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몸을 쪼개신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 교회는 모두가 용서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인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인해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곳이다.

- 교회는 하나님의 복지관이다. 눈먼 자를 치유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며, 주린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애초에 당부하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의 기구이다.

- 교회는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이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비로소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라는 인식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란 비로소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사무장’이 ‘사무국장’으로 바뀐다

주님의교회의 행정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무국의 수장인 ‘사무장’의 호칭이 ‘사무국장’으로 바뀐다. 지난 5월 9일 정기 당회에서 <주님의교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그동안 불려왔던 ‘사무장’이라는 명칭이 ‘사무국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날 당회에서는 이미 변경 시행되고 있는 직제 및 사역의 명칭을 당회운영규정에 반영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대비한 교회 행정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주님의교회 당회운영 규정>, <주님의교회 인사관리 규정>,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선교위원회’는 ‘선교구제위원회’로, ‘목회지원’은 ‘미디어관리’로 개정되었으며, 지난 해 10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사무국운영규정>에 따라 ‘사무장’의 명칭도 ‘사무국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가정 사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뷰티플 페어런팅 센터를 운영규정에 넣어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직접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항존직 선거 시에 현장투표와 함께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함글함글

| 5월 당회에서 개정된 주요 규정 |                                                                                                                                                                                                                                                                                                     |                                                                                                                                                                                                                                                                                                                                            |
|-------------------|-----------------------------------------------------------------------------------------------------------------------------------------------------------------------------------------------------------------------------------------------------------------------------------------------------|--------------------------------------------------------------------------------------------------------------------------------------------------------------------------------------------------------------------------------------------------------------------------------------------------------------------------------------------|
| 규정                | 종전                                                                                                                                                                                                                                                                                                  | 개정                                                                                                                                                                                                                                                                                                                                         |
| 주님의교회<br>당회운영 규정  | <b>제5조(당회의 직제 및 운영)</b><br>당회는 교회 본연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둔다.<br>① 교회의 사역을 목양, 교육, 선교 3개의 사역위원회로 나누고 사역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 위원회별로 맡은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br>② 교회 사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 기획조정, 대외협력, 인사, 예산심의, 목회지원, 사무국운영, 선거관리, 치리, 장학, 상례, 재정, 감사 위원회 등을 두어 당회에서 위임한 각각의 전문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 <b>제5조(당회의 직제 및 운영)</b><br>당회는 교회 본연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제를 둔다.<br>① 교회의 사역을 목양, 교육, 선교구제 3개의 사역위원회로 나누고 사역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 위원회별로 맡은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br>② 교회 사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로 기획조정, 대외협력, 인사, 예산심의, 미디어관리, 사무국운영, 선거관리, 치리, 장학, 상례, 재정, 감사 위원회 등을 두어 당회에서 위임한 각각의 전문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
|                   | <b>제11조(각 전문위원회의 사역)</b><br>⑤ 목회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사역은 다음과 같다.<br>1. 구성 : 5명 이내의 당회원으로 구성함.<br>2. 소관 사역 : 목회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                                                                                                                                                                            | <b>제11조(각 전문위원회의 사역)</b><br>⑤ 미디어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소관사역은 다음과 같다.<br>1. 구성 : 담당 목회자와 시무장로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인터넷, 미디어, 자료관리 등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무장로를 포함함.<br>2. 소관 사역<br>가. 교회 역사 자료 보존,관리(글로리아 자료도우미시스템 등)<br>나. internet 및 영상 관리<br>다. 함글함글 발행/ 출판부 관리<br>라. 기타 교회의 역사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사항                                                              |
| 주님의교회<br>인사관리 규정  | <b>제3조(교역자 및 직원의 직급과 직능)</b><br>② 직원은 사무장 및 간사로 구분하고, 간사직으로는 서무간사, 경리간사, 교역자실간사, 목양실간사, 디자인간사, 음향간사, 영상간사, 전산간사, 시설물관리간사, 미화간사 등을 둔다.                                                                                                                                                               | <b>제3조(교역자 및 직원의 직급과 직능)</b><br>② 직원은 사무국장, 팀장, 간사로 구분하고, 간사직으로는 서무간사, 경리간사, 교역자실간사, 목양실간사, 디자인간사, 음향간사, 영상간사, 전산간사, 시설물관리간사, 미화간사 등을 둔다.                                                                                                                                                                                                  |
| 주님의교회<br>선거관리 규정  | <b>제3조(항존직의 선출방법)</b><br>① 주님의교회 항존직은 전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br>② 당회는 선거 과정상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훌륭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성도를 공동의회에 항존직 후보자로 공천할 수 있다.<br>③ 상기 ②항의 후보자 공천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로 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                                                  | <b>제3조(항존직의 선출방법)</b><br>① 주님의교회 항존직은 전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br>② 당회는 선거 과정상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훌륭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성도를 공동의회에 항존직 후보자로 공천할 수 있다.<br>③ 상기 ②항의 후보자 공천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로 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br>④ 상기 ①항 ‘직접선거’에는 현장에서 시행하는 투표(현장투표)와 재난상황 등의 경우에 시행될 수 있는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도 포함된다.(신설) |

창립 33주년 기념 특집  
교회의 어제를 읽는다

## 50 대 50 나눔의 10년사

6월 27일은 주님의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았던 1998년

창립 교인 중 한 분이 주님의교회 창립 시절을 회고하며

〈함글함글〉 13호(1998. 7)에 기고했던 글을 재수록합니다.

주님의교회가 어떤 시대정신과 신념으로 태동했는지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록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살려 게재함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창립 1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지난날을 이야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언뜻 떠오른 생각은 막연함과 한편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10년 세월을 혼자서 이야기한다는 객관성의 문제와, 또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대로 10년이 지난 이 시점의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한한다면 첫 예배를 드리게 된 1988년 6월 마지막 주일 이전까지의 과정을 궁금해하는 교우들이 의외로 많아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훗날 또 누군가가 50년, 100년 교회사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공 정권의 말기였던 1986년부터 1987년의 6. 10 시민 항쟁까지는 이 나라 전체에 짙은 먹구름이 내려앉은 흑암의 시기였습니다. 출범부터 광주 학살의 시한폭탄을 안은 군사 독재 정권의 불안했던 그 시기에 전국의 대학과 재야 단체들의 반독재 저항이 날로 격심해져 갔고 저지하는 정권에 맞선 학생들의 분신과 투신자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86년말 한 대학생이 정권수호의 공권력으로부터 고문을 당하다 죽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를 보면서 침묵했던 우리에게 이 사건은 심한 자괴감과 무력감을 가져왔습니다. 이 혼란기의 와중인 1987년 벽두에 필자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의 영혼을 위해 전국의 교회가 기도 시간을 가지기로 발표된 교단의 결정이 묵살되었습니다. 어쩌면 독재정권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는 그것이 도리어 양심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사에서 정신문화의 전환을 이룩한 14~16세기에 걸친 르네상스 문화의 저변에는 기독교 사상이 있었고, 이태리 중부의 토스카나 지방을 진원지로 하여 전 유럽까지 끼친 그 종교적인 영향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럽의 도시마다 남아 있는 교회 건물의 화려함과 크기는 가히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일임에도 그곳에는 관광객들로만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황폐해 가는

낡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키재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대한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유럽의 도시에서 보았던 교회 건물들이 오버랩되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역시 불과 몇 해 전에 헐당한 교회를 헐고 다시 크게 지으면서 인근 주택을 웃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 확장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나눔에 인색한 오늘 날 이 땅 위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즈음 그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김도묵-강정혜 집사님, 홍근용-이영자 집사님, 양동훈-남현숙 집사님, 그리고 필자와 박두리 집사의 네 가정이 교회를 떠났고 그것은 예정 없는 방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서울과 경기 일원의 수많은 교회를 함께 순례하면서 1년여 동안 많은 교회를 보았고. 그곳에는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의 장점이자 단점인 개교회 중심의 속성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었으며. 교인들의 소속 교회에 대한 “우리끼리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나 중심의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순례는 뒷날 “주님의교회” 미래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 계시는 교회를 찾아 정착을 못하고 있던 1988년 초순 경에 떠나온 교회를 함께 섬겼던 한국 기독교여류문인회 회장인 정연희 권사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 분 역시 방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연민이었던지 그 분은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떠돌이 일행을 위해 여류 문인들이 어느 전도사님을 모시고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고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편 출판사 홍성사를 경영하면서 오직 기독 서적만 발행하여 문서선교를 하면서 쿼 선교회를 이끌고 필요한 곳마다 찾아가서 찬송과 말씀으로 선교중인 한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 분이 성경공부반의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분의 짜여진 일정을 비집고 들어가 매주 한 차례씩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 마침내 방랑자 일행은 영혼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공부 반에는 하나 둘씩 찾아든 이전 교회의 옛 교우들과 전도사님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 곳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곧 포화가 되었습니다. 홍성사의 강의 공간은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 강남 YMCA로 자리를 옮겨 성경공부는 계속되었고. 그 분의 맑고 순수한 영혼의 목소리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곳마저 모여들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본교회 없이 오랫동안 떠돌아 다니는 신앙생활의 갈등에 네 가정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 성경공부반의 참석자들과 함께 교회 개척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5월 쯤에 떠도는 이 무리를 이끌어주실 부탁의 말씀을 전도사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부탁드린 쪽이나 받은 쪽 모두에게 예정되지 않은 돌발사태 같은 것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자신이 세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인 목회에는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듭 간곡히 부탁드렸으며. 전도사님 역시 번민의 기도가 계속된 후 마침내 수락의 말씀이 있었고 이 분이 주님의 교회 첫 10년을 담임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준비 기간 내내 긴장했지만 두려움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예배 처소의 문제는 이영자 권사님 친지의 배려로 그 분이 운영하는 한남동의 청년여성교육원이 세운 지하실에 더부살이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시면서  
그 소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이룩하든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련하고. 마침내 1988년 6월 26일에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분들과 교회 개척에 동참한 옛 교우 가정의 아이들과 축하객까지 포함한 50여 명이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랑의 우리들에게는 엄동설한의 황야에서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퍼진 이불 속에 지친 몸을 눕히는 것 같은 평안과 안도의 예배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의 열정은 사명감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고 이 작은 공동체에 속한 모두는 목사님을 따라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의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창립예배를 드리던 전날 밤에는 교회의 진로를 위한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도묵 장로님은 헌금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에 쓸 것을 제안했고 이재철 목사님 또한 주저 없이 받아들여 주님께 우리 모두가 약속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우리의 예배 처소를 가질 수 없다는 마음속의 포기였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은 절반만의 헌금으로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은 언제나 궁핍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의 확신에 찬 말씀대로 한치 오차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졌던 수많은 사례가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궁핍해도 50 대 50 나눴음의 주님과 약속은 철저히 지켜졌고. 마침내 그로부터 7년 여가 지난 1995년 9월의 어느 주일 저녁에 우리 약속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일 저녁예배는 정신여고 합창단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교회 봉사부에서는 방문해주는 학생들에게 저녁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봉사부장이던 필자는 선교관에서 그 준비를 점검하고는, 학교의 인솔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앉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 중에, 학교의 목사님으로부터 정신여고가 오랜 역사를 가졌고 수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어 사회 각계에서 활동중인데도, 그 동창회가 추진하는 대강당 건축의 기금이 모이지 않아 진전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큰 행사와 전교생이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절실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쪽이나 듣는 쪽 모두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대공사이기에 피차 지나가는 말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 위에서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이재철 목사님의 평소 말씀대로 그 좌중의 김도묵 장로님은 강당 건축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담당할 것을 목사님께 제안하면서 그 안건이 당회에 통과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즉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건축 계획이 가진 의미와 건물이 상징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세부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 1997년 8월에 기공식을 가졌던 것은 그간의 건축위원회로부터 경과 보고를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여고 합창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패키지 역사가 차례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포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원령으로 징집된 그 전문가 그룹이 건축위원회를 지원해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의 입찰 서류들을 정밀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합당한 시공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시행하는 이 공사를 위해, 타사 보다 놀랄

만큼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면서도 우리 교회 전문가 그룹이 높이 평가한 강산건설의 대표이사 박재준 집사님은, 외부의 어느 업체와는 달리 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뜻을 잘 알고 있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공중에 있으며. 결론은 준공이 끝나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이제 막 외관이 드러난 강당을 보면서 10년 전에 주님께 드린 그 나눔의 약속이 새롭게 회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가 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목사님과 전교인이 힘을 모았던 그 상급으로 이렇게 훌륭한 예배 처소로 되돌아올 줄은 우리 모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시면서 그 소유는 우리가 아니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이룩하든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앞으로 이 강당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예배 때 우리 교회가 결코 외관이 큰 교회가 되지 말고 다만 주님의 뜻만을 크게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드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10년 전 첫 예배를 드린 후 그 헌금으로 전남 묘도에 그 섬이 생긴 이래 첫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헌당했던 기쁨이 10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정신여고 강당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2, 제3의 정신여고 강당을 또 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꼭 강당이 아닐지라도 50 대 50의 나눔은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교회가 더 이상 바벨탑 쌓기 경쟁보다는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사명을 실천하는 그 좌표로 이 강당을 주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첫 10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일생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 중에 이 10년이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모두는 이 교회에서 주님과 인연 맺은 10년째의 날을 각각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 10년이 일생의 가장 보람찬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10년 사역을 마친 당신의 종과 헤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한이 남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헤어짐은 훗날 영원히 이별 없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아쉬움을 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년간 그가 애쓴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예비하신 그 앞길에 길잡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주님께 일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 뜻을 주님 아시오매 세상 속에서 행하는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고 늘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만남의 주선자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8. 5. 30

황기연 집사

창립 33주년 기념 특집  
교회의 어제를 읽는다

## 주님의교회를 생각하며

창립 10주년을 맞았던 1998년,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체류하고 있던 임영수 목사님이 주님의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함글함글〉 13호(1998. 7)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임영수 목사님은 평광교회 담임목사, 남대문교회 담임목사

영락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고 스위스 융 인스티튜트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임영수 목사님은 이후 주님의교회 2대 담임목사로 재임했습니다. (편집자 주)

기독교 역사 초기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회상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 기쁨이 있곤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은 빌립보 교회의 건물이 웅장하다든가 교인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그것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 매우 아름다운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52년경 바울의 제 1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하였던 사람이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였습니다.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은 귀신 들렸던 여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의 집안이었는데, 이들의 가정이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는 작고 가난했지만 무척 관대하고 자선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희망·기쁨·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교회’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도 아니며 웅장한 건물과 많은 수의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교회를 생각할 때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끝으로 10여 년 동안 주님의교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회하여 오신 이재철 목사님과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담긴 축하의 뜻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네바에서

임영수 목사

창립 33주년 기념 특집  
교회의 어제를 읽는다

## 함글함글의 삶으로 21세기 아름다운 주님의교회를

창립 10주년을 맞았던 1998년, 당시 남선교회 회장이

주님의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함글함글〉 13호(1998. 7)에 기고했던 글로,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구호가 아니라 실천으로 함께 했던 함글함글의 정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교회, 그 굳세고 강건한 믿음 앞에 우리 하나 되어 무릎 꿇고 기도한 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숭한 고난과 기쁨이 교차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아 잠잠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 곁에서 능력의 말씀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거룩한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글함글-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해온 성도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산고 끝에 태어난 아기가 더욱 사랑스럽고 소중하듯 그 동안 주님의교회는 첫 예배 처소에서 YMCA를 거쳐 현재의 정신여고로 옮기기까지 가나안을 찾아가는 모세의 행로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들의 선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이재철 목사님께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재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의교회는 짜임새 있는 목회 프로그램과 교역자님·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과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헌신하여 충실한 믿음의 터전을 닦아온 결과, 6교구 79구역, 2000여 명의 장년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곧 해왔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충만한 성령의 가호 아래 기도·봉사·선교·구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교회 내의 남·여 선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주님께서 불러모아 주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2000여 명의 나눔의 실천과 훈련장의 선교화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늘어난 성도님들이 서로를 알고 깊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성도님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굳건히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함께 주님의 사업 계획을 의논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선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아름다운 21세기 주님의교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 먼저 가신 교우님으로부터 형제 교우로서 환영받고, 우리도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천국에의 소망을 위해 우리는 충만한 믿음으로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소임을 다하며 제직부서와 선교회의 귀중함을 깨달아 모이는 데 힘쓰며 함글함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복음의 진수와 능력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창복 장로

창립 33주년 기념 특집  
교회의 내일을 읽는다

## 내가 바라는 주님의교회의 미래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창립 33주년을 맞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소년층부터 80대에 이르는 여러 세대에게서 받은 소망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직분은 생략했습니다. (편집자 주)

율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교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 사람과 환경, 피조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 먼저 배려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강혜경**

주님의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각기 고유하고 다른 모습을 지닌 지체들이 색깔을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함께할 수 있는 알록달록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체들이 모여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되는 교회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경하**

저는 주님의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12:15)처럼 과도한 탐욕을 멀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항상 가진 것을 나누며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준**

주님의교회는 젊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30/40 집사들의 봉사활동이 활발히 되는 교회, 자녀가 유/초/중/고등부로 커가면서 선생님이 봉사 하며 교회 곳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젊은 집사들이 봉사 하면 좋겠습니다.

해외선교와 북한, 국내 해외인 거주자 선교에 중점을 들수 있는 선교중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선교사님들은 해외선교만 지원을 하지만, 국내 해외인 거주자 선교활동을 위한 조직이 강화되고 예산이 확대되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갑**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교인 복지와 돌봄에 힘쓰며, 예배에 활력을 찾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영근**

미래의 꿈을 키우는 다음세대들의 즐겁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선교의 사명을 품고 헌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굳건히 세워지고 힘써 달려가는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천숙**

주님의교회가 청년의 열정으로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 겨자씨 소그룹 모임 활동에서부터 재출발하여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육간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영백**

제가 바라는 주님의교회 미래는 정체된 틀에서 한 발짝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침은 유지하면서 때로는 일반 성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주님의교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 왔으

면 좋겠습니다.

**안혜정**

미래의 주님의교회가 집 같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모임을 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집과 같은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현서**

나는 주님의교회의 미래가 우리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며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외국에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민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옆자리의 친구와 다른 가치관을 나눈다는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어진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거듭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예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과공부 시간에 공부대신 말씀과 관련된 놀이와 다양한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주님의교회! 그래서 주위의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주님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율**

미래 주님의교회는 학생들과 어른들 사이에 대화가 많이 오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유행도 알고, 고민도 나누며, 지혜도 깨달아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세은**

저는 주님의교회가 성도 간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대형교회인 만큼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외에 다른 분들과의 교제를 갖기 쉽지 않은데, 최대한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해웅**

제가 바라는 주님의교회 미래는 다양한 만남과 교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겨자씨외에 만남의 기회가 거의 없어 예배만 드리는 분이 많은데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밀한 교제와 간증을 들음으로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최기상**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막 11:17)

예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공연(公演)’하는 곳이 되어 우리들은 ‘관중(觀衆)’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지난 3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심령과 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펴서 성령의 영광로가 펴펴 끓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민기**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부모와 자녀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향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며 일상에서 감사를 찾고 행복을 누리며 따뜻한 시선과 말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황정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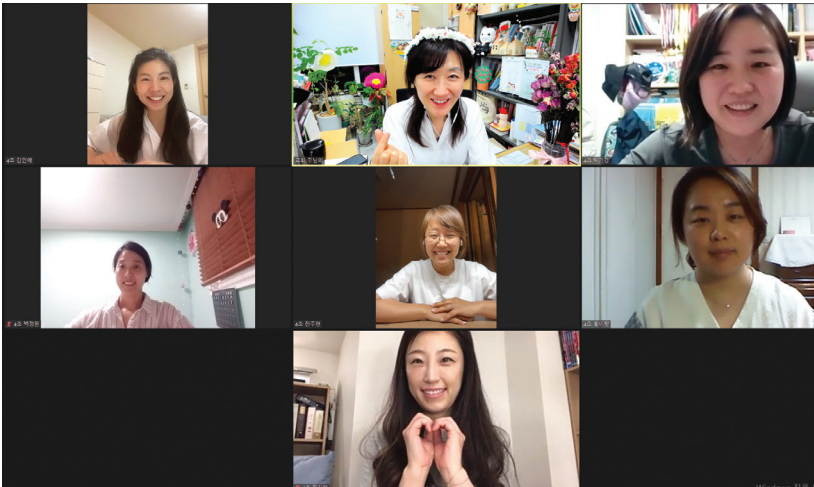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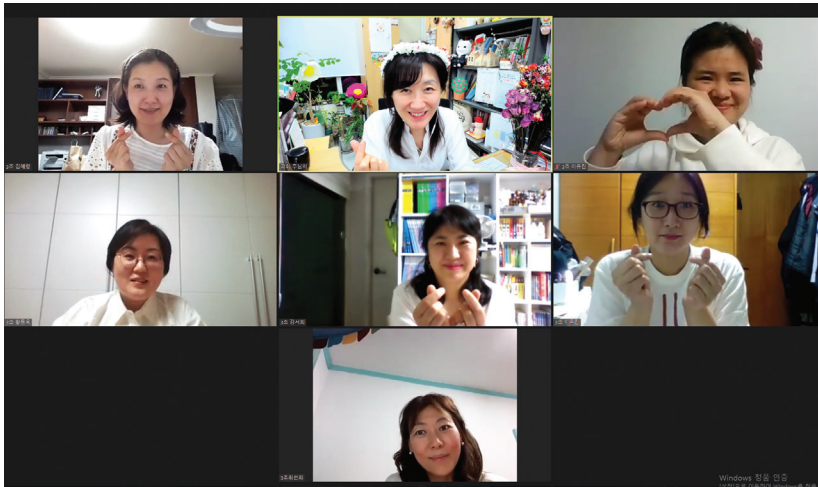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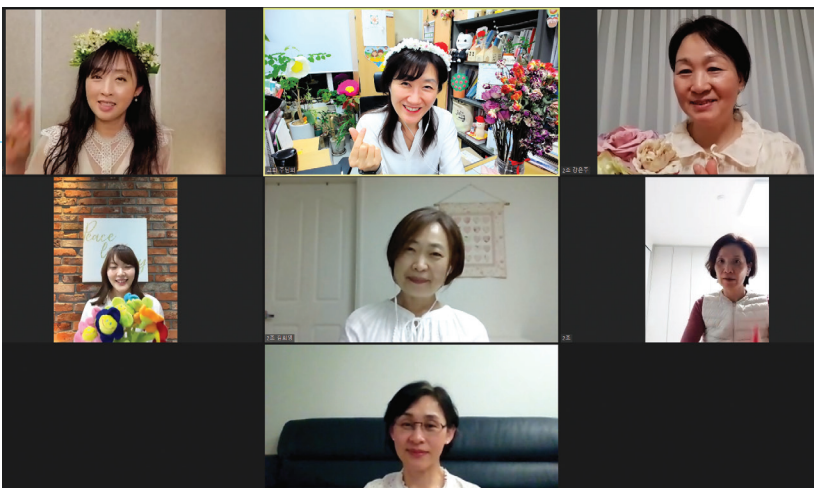
뷰티풀퍼어링 센터 소식

## 마더와이즈 & 파더와이즈 제1기 종강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잠 31:26).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을 성숙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제1기가 지난 5월 25일(화)에 종강하였다.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는 3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0주간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된 소그룹 모임이다. 이번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는 <지혜>편 교재로 진행되었다. <지혜>편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돌아봄으로써 여성과 남성, 아내와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는 함께하는 찬양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조별 메신저방에서 서로 학습하고 나누었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리뷰 시간을 가진 후, 각

조별로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하여 소그룹 중보기도인 6S기도와 나눔을 하고 다시 대회의실에서 함께 모여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성 조원들로 구성된 마더와이즈는 4개조로, 남성 조원으로 구성된 파더와이즈는 2개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32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10주 동안 매일 깊은 소그룹 교제와 나눔을 경험하였다. 언택트 상황으로 모이기 어려운 중에도 온라인 ZOOM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된 소그룹 모임과 나눔들은 무력하고 침체된 일상에 공동체의 온기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왔다. 모이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로 힘든 상황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함글함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봄이 왔나 봄**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시작해 봄**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을 성숙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



뷰티풀페어런팅 센터 소식  
소감

## 동굴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세우는 시간

### 마더와이즈 1조

마더 와이즈시간들은 저에게 은혜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원 권사

"나는 혼자 동굴에 머물며 사는 자인가, 누군가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사는 자인가?" 삶의 방향을 다시 수정합니다. '지혜로 세우는 자' 되도록. 김유경 권사

마더와이즈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흐를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김윤희 집사

저를 돌아보며 아이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좋은 엄마 흉내를 내 보아야겠다는 결심을 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임혜현 집사

남편을 섬기고 도와주며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지혜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 함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미영 집사 / 조장

조원들의 뜨거운 신앙심에 헛된 꿈을 던졌던 젊은 시절을 후회하며 조원 모두가 저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완주 할 수 있었던 건 조원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김경희 권사

### 마더와이즈 2조

‘마더와이즈를 접었을 때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가정과 남편과 자녀에 대해서 정리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강은주 권사

매일의 묵상 나눔들이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으로, 따듯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왔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함혜련 권사

여성으로 태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을 잠시나마 잊고 있는 제게 이 모임이 힘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말씀과 기도가 길이라는 깨달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서희송 집사

모두의 고백과 격려가 참 풍성하고 감사 기쁨이 배가 되는 풍요를 느껴요. 하늘아버지의 뜻을 좇아 마더와이즈를 통해 힘 받아서 독수리 날개 처 올라갑시다. 김정선 집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믿음의 가정을 기대하며, 짧지만 빛나는 청년의 때에 마더와이즈를 듣게 해주심이 너무나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강신애 자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많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아파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가족공동체의 섬김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김희영 집사 / 조장

### 마더와이즈 3조

나는 남편의 역할을 위해 기도로 도우며 자녀에게 아버지를 선의로 소개하며 함께 집을 세워가길 다짐합니다. 이유진 집사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한곳으로 치우친 삶을 살고 있었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배운 말씀 잊지 않고 붙들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유진 집사

축복으로 주신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어 남편과 자녀를 세우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겠습니다. 김혜령 집사 / 조장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 사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최선희 집사

남편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권위와 리더십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아내로 세워가겠습니다. 강서희 권사

남편을 우리 가정의 영적육적 가장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녀 회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황동욱 집사

### 마더와이즈 4조

마더와이즈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된 것 만도저는 모든 것을 회복했음을 믿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제가 되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정지현 성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계속적인 묵상, 기도를 통한 실천이 제 삶을 변화시키리라 확신합니다. 백기경 집사

이제 막 40대에 접어들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숨고르기 한번 하고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세상 속에서 덜 흔들리고, 묵묵하게 힘을 내어보려 합니다. 홍이랑 집사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인애의 법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전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김인애 집사

마더와이즈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멘토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바쁜 일상에서도 주님과 관계에 소홀해 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원 집사

사랑해 4조♥자매님들 덕분에 오늘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 집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서로가 안내자가 되어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든든한 힘이 됨을, 저 또한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주현 집사 / 조장

### 파더와이즈 1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최기상 집사

아이를 낳고 키우며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어진원 집사

가족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서 지혜로운 아버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임익수 안수집사 / 조장

사랑의 담요, 훈육의 회초리, 생명의 떡으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아버지로 세워가겠습니다. 최민기 안수집사

### 파더와이즈 2조

참 좋은 아빠, 괜찮은 남편, 최고의 할배가 되기 위해 파더와이즈에 참여 하였습니다. 최고의 조장님과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거목들과 함께 즐겁게 2조를 이루어 교육을 받았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길동 안수집사

현명한 아버지, 지혜로운 남편, 재미있는 할배가 되기 위해 본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파더와이즈를 통해 “가족이 신앙의 교사입니다”표어처럼, 가족들의 신앙교사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 안수집사

가족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서로 돕고 인정하며 각자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돕고 서로를 인정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 안수집사

앞으로 가족과 가정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자녀들에게 반석과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정준호 안수집사 / 조장

사역 소개 | 영어예배

## 영어예배를 소개합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아직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 또는 외국어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부터는, 거리와 시간의 장벽을 넘어 외국에 있는 선교사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주님의교회 영어예배부를 소개합니다. **함글함글**

EM 성인부

## 영어로 함께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예배를 통해 얻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종교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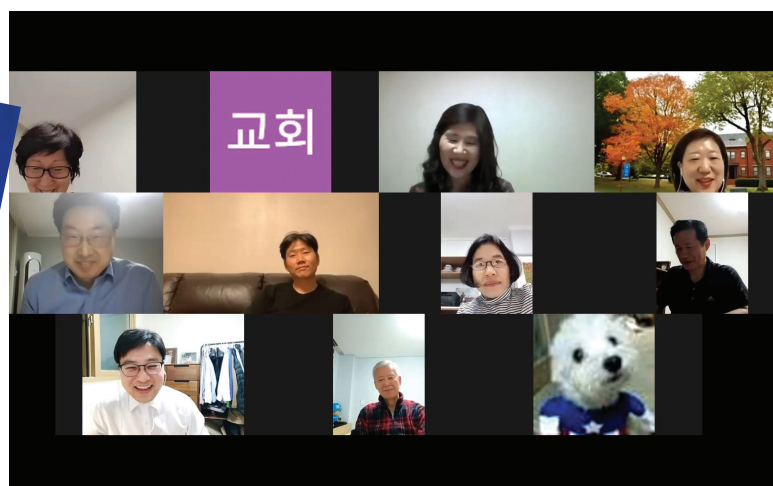
저희 주님의교회 EM분과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전 예배와 성경공부 등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M 성인부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매일

아침 네이버 밴드를 통해 Daily Devotional(QT)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줌을 통하여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는 교제를 가지고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회의 등도 줌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온 가족 구성원이 더욱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The Miracles'라는 가족 영상 큐티를 매 주 한 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고 불편했던 비대면·온라인을 통한 만남과 성도의 교제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교회에서 현장 모임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



**EM**  
(English Ministry)



### ● Vision :

A Community revealing God's Glory

### ● Mission :

A Community living as the people of God's Kingdom

## EM 어린이부

## 어린이들도 영어로 드리는 즐거운 예배

주님의교회 English Ministry(EM) 어린이 예배는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가 있습니다. EM 어린이 주일 예배는 주일 11:00 AM에, 수요일 어린이 예배는 수요일 7:20 PM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을 위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줌(ZOOM)에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 꾸러미 만들기

줌 예배 후에는 줌 공과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EM 어린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꾸러미를 만들어 개별 학생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꾸러미는 매주 예배 본문 내용과 관련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활동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2개월마다 1번, 수요일예배는 1개월마다 1번 꾸러미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대면 예배 때 시간과 공간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간단한 요리, 더욱 다양한 만들기 재료, 게임 등 색다른 활동을 통해 설교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선생님들과 심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에는 과자 만들기 재료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만들어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룩(성경구절)에 비유하신 것을 배울 때는 집에서 직접 실험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았습니다.

## 마가복음 영어성경(NIV) 읽기

< Mark Challenge 2021 >이라는 마가복음 영어성경(NIV) 읽기 영상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각 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절을 읽는 영상들을 합쳐 온전한 마가복음 한 장 한 장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완

성된 영상을 보면, 모두가 힘을 합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대면 예배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가 가지게 합니다.

## 선생님들의 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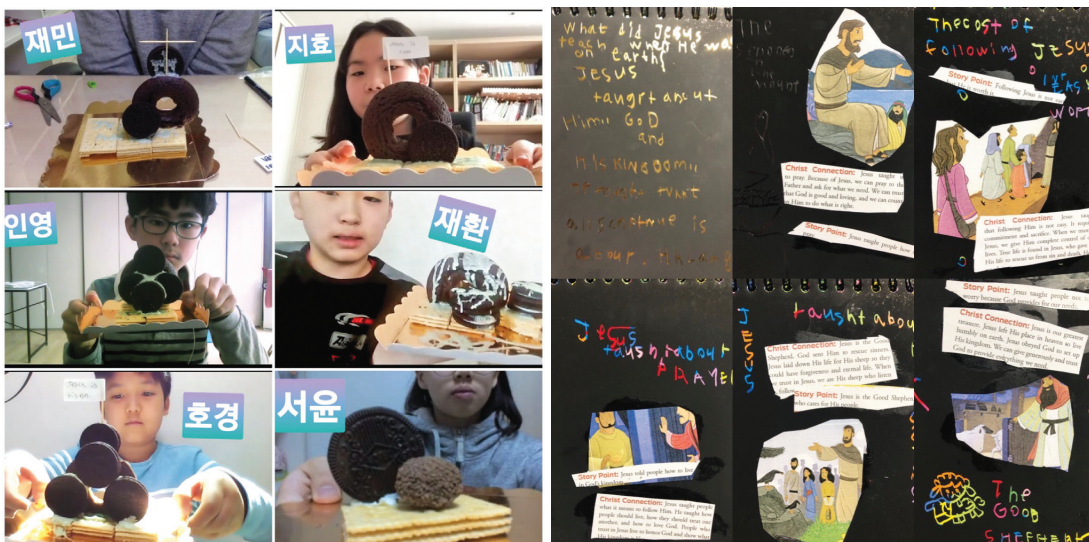
이런 다양한 활동은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예배 본문 말씀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재료에 대해 교사 아이디어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매번 꾸러미를 만들어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보낼 때 역시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장시간 헌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수의 제한과 마스크 착용이란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도 아이들의 기쁨을 생각하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 뜻밖의 선물

줌 예배는 여전히 비대면인 것과 여러 사람이 대화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간적 제약을 없애주는 뜻밖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연수 가신 선생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한 아이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EM 어린이 예배 공동체가 풍성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뜻밖의 선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제 속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대면예배가 어서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EM 어린이 예배 참여나 2021 여름 성경학교 (ZOOM VBS, 일정: 8/7, 14)에 관심이 있신 분들에게서는 정지인 전도사(010-7280-2488)에게 문의해 주시면 예배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지인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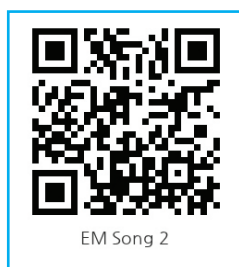


Mark 2021

마가복음  
영어성경 읽기

EM Song 1

찬양 1



EM Song 2

찬양 2

예배 후 공과시간에는 여러가지 액티비티 뿐 아니라 Worksheet과 Review session을 갖기도 합니다. Worksheet은 예배 본문 내용에 대한 심화와 응용 학습을 위한 액티비티이며, Review session은 한달 동안 배웠던 성경내용을 만들기과 접목하여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역자의 글

### 최선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시간

주님의교회에서 EM부서를 맡았을 때, 그동안 보고 겪었던 부서와 너무 달라서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어느새 3년을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EM 부서에는 성인부와 아동부가 있고, 아동부는 수요일반, 주일반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면 EM에 맞게 영어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들을 다 알아듣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외롭게 사역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가 느껴져 마음이 찡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기대하며 기다렸던 영어 캠프는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이제는 겨울과 여름에 2회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의 수요일에 불에 태워지고 남은 재로 목사님께서 수요일반 어린이들과 교사들 한 명 한 명의 팔목에 십자가를 그려 주시고 모두 세족식을 하며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요일반은 수요일에, 주일반은 주일에 zoom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현장에서처럼 2부 순서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각 가정으로 보내 주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오전과 주일 예배 후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모여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어린이들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꾸러미를 포장합니다.

내가 속한 부서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내가 섬기는 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으나 여러 섬김을 통하여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 무엇 하느냐 물어 보시면 네 주님 잘 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 숨 쉬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 기쁨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실 권사 / 영어예배부

학부모의 글

### 다른 나라에서 함께 하는 예배

2019년 2월부터 키르기즈스탄에서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던 차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19 팬데믹을 맞이했다 2020년 3월 중순부터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고 생필품이나 병원 약국 출입이 아닌 외출은 통제되는 상황도 지냈고 중앙아시아에는 코로나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양측성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고통 당하는 상황에서 패닉을 경험하여 전세기를 타고라도 한국으로 가야하는지 기도하였지만 가족 모두 건강하였고 초기 정착하는 단계라 언어문제도 있고 하여 계속 머물러 있었다. 작년 봄, 여름에 많은 한국분들이 한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비쉬켄에는 한국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고 아이들도 단조로운 집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뭐라 설명할 수도 긴 시간을 보내니 에너지가 넘치는 딸 서연이에게는 뭔가 변화가 필요했는데, 한인교회에서 올해 2월부터 주일학교에 모여 예배를 드리니 그나마 신앙생활에도 활기가 도는 듯했다. 비슷한 시기에 여동생으로부터 줌을 통해 EM 어린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정지인 전도사님께 부탁하여 초대받았다. 서연이는 키르기즈에서 러시아어로 배우기 때문에 영어는 아주 기초적인 것 밖에 모르지만 참여의사를 물으니 주님의 교회 사람들을 줌으로 만나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기대감으로 처음부터 참여하겠다고 했다. 옆에서 서연이 오빠가 ‘너는 영어도 모르면서 뭘?’기를 죽였지만 신경도 안 썼다. EM어린이 예배가 한국시간으로 주일 11시에 예배가 있지만 키르기즈 시간으로는 3시간 빠른 오전 8시에 예배가 있어 다소 이른 시간이라 염려가 되기도 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날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 주일 아침에는 혹시 전날 늦게 잤더라도 ‘영어예배’라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대충 채비를 하고 줌을 열어 예배에 참여했다. 당연히 영어찬양도 모르고

영어성경도 몰랐지만 우물우물 입술로 따라하며 전도사님의 설교에 집중했다. 예배 후 반 소그룹 모임에도 선생님들과 만나 소통하고 주별 Activity를 따라했다. EM에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activity 자료와 재료를 택배로 보내주었지만 서연이는 받을 수 없기에 종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집에서 준비했다. 한국은 좋은 재료와 시스템 있고 EM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activity의 수준이 높아 키르기즈와 비교할 수 없었다. 매주 보내주신 전도사님의 자료파일들을 보고 내가 교사로 섬기는 한인교회 주일학교에서 살짝 참고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줌으로 하는 예배이지만 EM 예배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거의 80% 오프라인예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때는 서로 얼굴을 보기 때문에 더 소통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여 서연이는 소그룹 반모임 친구들의 이름을 얼굴을 직접 본적도 없는데 다 외운다. 서연이가 옆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나 예배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함께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가끔은 줌 예배임에도 서연이의 진지한 모습 속에서 나는 감동과 웃음을 선물로 받는다.

매주 정지인 전도사님께서 줌으로 초대해주시고 재미있는 예배를 준비하신다. 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 서연이는 영어예배를 아주 좋아한다. 더불어 이제 몇 달 만에 영어 단어를 조금씩 읽게 되었다. 특별한 영어 교육을 따로 시키지는 않고 있고 영어교육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자동으로 따라오는 혜택이었다. 좋아서 드리는 예배, 기대하는 예배- 우리 서연이를 옆에서 보면 영어 예배가 딱 이것이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예배를 서연이가 한국 직항 비행기도 없는 키르기즈에서 매주일 참석할 수 있었을까? 코로나 속에서의 또 다른 은혜이다.

이금희 / 영어예배부 허서연 엄마

## 선생님의 글

## 기도와 헌신으로 가능한 시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예경**

성경쓰기와 소그룹활동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이 가장 은혜 받는다고 생각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동되어주시는 전도사님과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선생님들과 함께 변화가 많았던 한해동안 영어 예배부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함수연**

Children's EM never stops worship!

Thank you, Jesus for helping us with children's EM by trusting in You.

**이윤정**

실시간 줌예배를 통해 함께 나눔의 감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꾸러미를 준비하며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넉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를 간접적으로 깨닫습니다. 또한 전도사님, 권사님, 교사분들, 아이들,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모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함에 놀라움을 느끼며 동시에 완전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길**

코로나로 인해 어쩔수 없이

1년넘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의 감격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 슬픔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EM의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넋 놓고만 있지 않고, 코로나 이후 빠르게

실시간 줌 예배를 도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활동 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또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그룹 활동을 통해 잘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아이디어들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한 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EM을 사랑해주시고 친히 이끌어주시고 주인되셔서

역사해 주셨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세심하고 모든 분들 상황을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풍성한 씨포트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권사님,

수고와 헌신과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 회의와 택배 싸는 시간들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김민경**

작년 초반 낮선 예배 환경에 우왕좌왕했었습니다만 zoom이란 플랫폼을 빨리 취하였고 그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2달 단위의 예배 준비물을 미리 기획하고 발송하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깨달았고 어디든 예배공간이 될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존의 예배 형태에 갇혔던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지은**

## 어린이의 글

## 집에서도 신나는 예배

코로나로 1년 이상 영어예배를 줌(ZOOM)으로 드리게 되었다. 매주 재밌는 활동 만들기, 그리기, 쓰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았다.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다양한 이야기로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매달 간식, 활동 자료, 재료 등이 다양해서 받으면 기분이 좋다.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시는 Activity가 정말 재밌다. 동생들을 도와줘야 해서 가끔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신난다. **정하준**

전도사님께서 꾸러미를 택배로 보내주실 때마다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맛있는 간식도 들어있어서 간식들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저는 솜사탕 간식이 가장 맛있었어요). 선생님과 ZOOM을 통해 눈을 맞추며 특별 만들기를 완성하고 나면 뿌듯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직접 교회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ZOOM으로 만나 함께 말씀도 듣고 만들기도 할 수 있어서 매주 ZOOM으로 드리는 EM 예배를 기다리며 얼른 수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예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익숙해지면서 점점 재미있어졌고, 예배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다. EM에서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꾸러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집에서도 재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

매번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시고, 재료들을 우리들 각자의 집으로 보내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지인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EM선생님들, 사랑해요!

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기만을 바랄 뿐이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줌이 아닌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다는 것을 코로나가 온 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종윤**

## 담당 장로의 글

##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실 예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너무 바뀐 가운데 교회의 예배도, 어린이 주일과 수요일 EM 예배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전에 없었던 온라인으로 드린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지인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온라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러왔습니다.

예배 준비물품을 각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교재를 구입하고 분류하고 예배지도안에 따라 패키징하여 택배로 보내기까지, 그리고 주일에, 수요일에 예배에 함께할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땀 흘리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집에서 온라인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교재를 사용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김학원 장로 / 영어예배부**

## 여름이 왔다, 예수님과 동행할 시간

7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유청청의 여름수련회 소식을 모았습니다. 유아숲에서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친소와 여름성경학교를, 유소년숲에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살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청소년숲에서는 작년 여름과 올해 겨울에 이어, 온라인수련회 시즌3을, 청년숲에서는 ‘지금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함글함글

**유아숲**  
예친소와 여름성경학교

### 와! 하나님이다!

- **일시** : 2021년 7월 10일(토) ~ 7월 25일(주일)
- **장소** : 온라인(교회 현장 : 7월 10일 11:00~13:00 만나데이(드라이브스루), 가정교회 : 온라인 유튜브 채널)
- **주제** : 와! 하나님이다! (겔 37:5)

이번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와! 하나님이다!” (겔 37:5)입니다. 특별히 유아숲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한 달 여 정도 앞둔 6월 13일(주일)부터 여름성경학교 오프닝이 시작되는 7월 10일(토)까지 친구 초청 잔치인 “예친소(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소개합니다)”를 진행합니다. 4주 동안 진행되는 “예친소”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숲 친구들은 전도가 어렵지 않으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름성경학교는 7월 10일(토) 오전 11시 ~ 오후 1시 교회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나데이 & 드라이브스루와 오후 3시 온라인 유튜브 채널의 여름성경학교 오프닝을 시작으로, 25일(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 바이블 시간여행 : 에스겔과 비밀의 문

- **기간** : 2021년 7월 24일(토) ~ 7월 25일(주일)
- **장소** : 온라인(유소년숲 유튜브 채널 및 ZOOM)
- **주제** : 2021 바이블 시간여행 : 에스겔과 비밀의 문(겔 37:5)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19 시대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지자 에스겔이 살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음파워 예배, 선생님과 함께 하는 성경학습과 센터학습, 유소년숲 보이는 라디오(시즌2), 코로나 시대 맞춤 부모교육특강 등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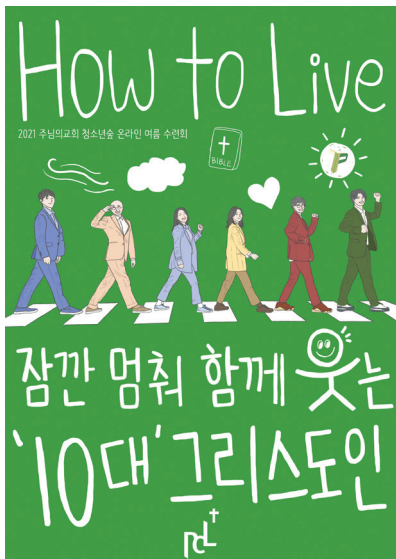


**청소년숲** 여름 수련회(시즌3)

### 잠깐 멈춰 함께 하는 ‘10대’ 그리스도인

- **일시** : 2021년 7월 25일(주일) ~ 8월 1일(주일)
- **장소** : 온라인 예배(주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챌린지도전(월~토)
- **주제** : 잠깐 멈춰 함께 하는 10대 그리스도인 (시 121:1-2)

청소년숲 2021년 여름수련회는 작년 여름과 올해 겨울에 이어, 온라인수련회 시즌3로 진행됩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멈춤’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멈춤’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인식하고, 함께 멈춰,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축제와 선물로 받아들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끽하는 시간들로 꾸려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나, 시즌1 : Live a Life),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 시즌2 : Walk in Love)에 이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세상, 시즌3 : How to live)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숲**  
여름 수련회

### 지금 공동체를 꿈꾼다

- **일시** : 2021년 8월 6일(금) ~ 8월 8일(주일)
- **장소** : 온라인(집회, 공연, 성찬)과 현장
- **주제** : 지금 공동체를 꿈꾼다(Dreaming the Community, 히 10:24-25)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모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시대 속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모아보자는 취지 또한 아닙니다.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을 떠나 연결되고 소통되어야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은혜 받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금번 여름수련회의 주제인 ‘지금 공동체를 꿈꾼다’의 중심 흐름은 모임이 아니라 모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을 세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목회 칼럼

## 예수님이 우리 삶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형편을 이기게 하는 힘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이 만든 미래는 밝습니까?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물체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작가는 이 물체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루솔로의 ‘속도의 역동성(Dinamismo di un automobile, 1912~1913)’이란 작품입니다. 이 물체는 자동차가 앞으로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동차 속력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시속 30km정도로 달리는 당시의 자동차를 마치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1914-1918) 이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자연과학의 발달과 산업화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기 기관차가 발명되고, 기차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업화로 인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술계에는 미래주의(Futurism)라는 사조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매우 낙관적인 기술사회로 변화를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의 종교를 과감히 버리고 속도, 운동, 에너지, 도시를 옹호했습니다. 미래주의자들은 인간을 매우 낙관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희망의 관점으로 다가가았습니다. 결국 군국주의에 목숨을 바치고, 기존의 가치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의 파시즘을 찬양하고 생명을 해하는 전쟁을 미화하고, 모순으로 가득찬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는 불안합니다.

현재 도래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래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현재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면 미래를 다른 모습으로 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건강한 신앙인은 미래를 어떻게 꿈꿔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도 현재의 삶에 역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의 여행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순항할 것 같은

배가 재앙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 다. 배가 항해한 지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손을 놓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 쫓겨나고 있었습니 다.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댁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싶었

던 배의 연장들과 짐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 다. 무엇보다 나침반이 없었던 시대에, 오직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았던 뱃사람에게 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신뢰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는 바울인데 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울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면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뜻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만사형통이 아니고 만사불통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도 위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도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현재의 반대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진리의 기둥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조금 일어난다고 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편안할 때 형통할 때는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믿음과 담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방해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형편을 이기게 하는 힘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이상훈 목사



## 알립니다

## 2021 함글함글 유유청청 백일장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유아숲 시화 부문

동상 : 정사랑

## 유소년숲 동시 부문

은상 : 오현서 / 동상 : 도혜원, 정우성

## 유소년숲 산문 부문

동상 : 윤예숨

## 청소년숲 산문 부문

동상 : 윤예주, 정세은

## 청년숲 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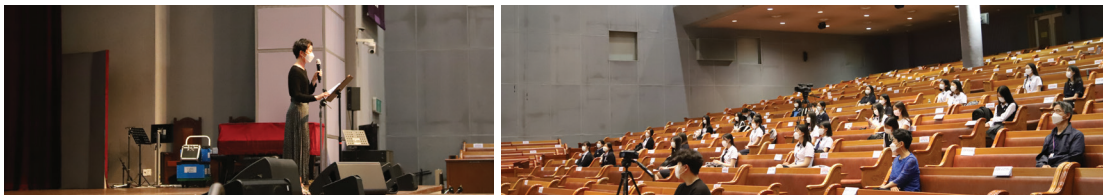
은상 : 박진실 / 동상 : 김승원, 배상훈

인간과 삶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글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백일장에 응모해주신 유유청청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상식 일정이 정해지는데로 개인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보출판부

## 공동체 소식

## 2021년 제5회 정신청소년포럼



정신여자중고등학교와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원이 함께 주최하는 ‘정신청소년포럼’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회 신애라씨(배우), 2회 이영표씨(축구해설위원), 3회 이옥주씨(드림위드 앙상블이사장), 4회 김현아씨(도시연구소장)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1,2회는 정신학원, 주님의교회,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면으로 진행하였고, 3,4회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영상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정신청소년포럼은 사회와 개인의 삶 속에서 타인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신학원 출신의 리더들과 사회활동을 하는 크리스찬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앞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힘으로써, 청소년기의 불안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생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제5회 정신청소년포럼은 황미숙씨(퍼포먼스그룹153 안무가, 공연연출가)를 강사로 모시고 ‘비전이 이끄는 삶’이란 주제로, 지난 6월11일(금) 오후4시 정신여고 학생과 교사 40여명이 대면으로 참여(대예배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5회 포럼 강의영상은 7월 9일(금) 주님의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함께 청소년을 사랑하고 살리며,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에, 정신청소년포럼이 가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임경순 목사

## 공동체 소식

## 호스피스 봉사자교육 10명 수료



3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63기 무지개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11주 동안 진행되어 6월 3일(목)에 종강을 맞았다. 주님의교회 수료생은 김영희 권사, 류혜경 피택권사, 김영란 집사, 안금주 집사, 소원영 집사, 구현숙 집사, 손민선 집사, 양지은 사모, 김중호 안수집사, 배운환 목사 모두 10명이다.

함글함글

## 교회 일정

|           |            |
|-----------|------------|
| 6/27 (주일) | 창립기념주일     |
| 7/7 (수)   | 교구연합수요기도회  |
| 7/10 (토)  |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

## 알립니다

##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VOL.2

필사본문 : 잠언, 전도서, 아가

필사기간 : 7/1(목) ~ 9/30(목)

수령기간 : 소진시까지 / 1층 로비(주중 1층 사무실)

## 2. 2021년도 온라인 비전트립 신청 및 일정

일정 : 베트남(1,4교구) 8/7(토) ~8(주일)

코스타리카(2,5교구) 8/6(금) ~7(토)

키르기스스탄(3,6교구) 7/23(금) ~24(토)

필리핀(7,8교구) 8/13(금) ~14(토)

인원 : 팀별 50명(소속교구 기준 신청)

회비 : 없음

문의 :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

##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매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